추석 명절 가정예배(추도예배)순서지

묵상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은혜(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 다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카메라로 비춰 보세요

대표기도 ———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 시편127편 1-2절 ——— 다같이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설 교 ———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광주동산교회
Dongsan Presbyterian Church

대표기도 예문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족 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가족에게도 함께 하여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붙드는 삶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모든 문제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예문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혼란 스럽습니다. 학업이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바르게 중심을 잡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의 기본적인 관심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집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시편은 지혜를 주며 도전합니다.

1.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 사람의 세움과 노력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거기에 "헛되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헛되다"는 "텅비었다"는 뜻으로 공간적인 묘사입니다. 우리는 집을 열심히 장식하였지만 텅비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물질도 다 있지만, 텅빈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모든 세움, 지킴의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보아도 늘 문제가 생김으로, 항상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하고 여유있습니다. 중추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심을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편안하고 견고한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잠을 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원하든 그 사람의 욕망대로 주어지는 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몰라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시기적절하게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의뢰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안함과 견고함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견고하고 편안한 삶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내 자신을 포함한 집을 세우는 일에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2. 최근에 내가 세우려다가 무너지고, 세운 후에 텅빈 것을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 적절한 평안(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